

2015 새 설계 김준성 영광군수

“대마 전기차 산단 우량기업 유치...신성장 동력 적극 육성”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오직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김준성 영광군수.

김 군수는 “올해는 민선 6기 군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새롭게 군정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비전을 앞당겨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힘찬 도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올해 중점 시책사업으로 ▲복지사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경쟁력 강화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 육성 ▲교육 명품도시 건설 ▲SOC(사회간접자본)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6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군은 우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노인 여가생활시설과 노인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장수수당 확대 지급 및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출산 양육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에도 힘써 나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사회 실현 교육명품도시 만들어 인재 육성

4대 종교성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갈 방침이다.

특히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군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단지과 송림그린테크 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앙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이차 보전금과 공장등록원-스톱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집중육성 및 직업훈련과 청년인턴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해소에도 힘쓴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계에 따른 개방확대로 농·어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민·관 합동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수도권 직거래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산지유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함께사는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넘치는 사회조성
- ▲농·어업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 ▲품격높은 문화관광과 체육 육성으로 감동 선사
- ▲전국 최고의 교육 명품도시로 발전
- ▲SOC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통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량 확보에도 나선다. 농업 핵심인력과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유도한다. 어업분야 역시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굴비와 천일염, 민물장어 등 특산물 육성을 통한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품격높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광 예술의전당과 우산공원을 문화예술 공연과 창작활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4대 종교성지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법성포 단오제’와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백수 해안도로권과 불갑산 권역을 축으로 관광레저 거점벨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무엇보다 인재육성을 위해 전국 최고의 교육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군정을

펼친다. 김 군수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대도시와 지방은 물론이고 지역의 명성을 높이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방과 후 학교’와 ‘무지개학교’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원어민 교사배치와 소규모학교 화성영 어 지원, 영어몰입캠프 운영, 해외 어학연수 등 교육환경 개선도 나선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군은 흥농과 백수를 연결하는 ‘영광대교’ 완공에 맞춰 주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칠산대교’, 흥농~백수간 국도, 법성~흥농간 국지도 건설 등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염산, 법성면소재지 거점기능 육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백수읍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불갑산권역, 삼미랑권역 종합 정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앞당겨 계획이다.

김 군수는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역량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6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고길호 신안군수 14개 읍·면 돌며 ‘2015 희망토론회’

3월까지 주민 애로 청취

고길호 신안군수가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에 나섰다.

신안군은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일 안좌면을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14개 읍·면 현지를 찾아 ‘군민과 함께 하는 2015 희망토론회’를 진행한다.

고 군수는 유관기관장과 각 마을 안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희망토론회’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안좌면 주민들이 지난 2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희망토론회’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토론회에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발전 방안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주민들은 가뭄에 따른 급수대책을 비롯해 농로 확·포장문제, 관광객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등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신안군은 안해읍과 지도읍, 중도면을 제외한 11개 면이 낙도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군정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또

는 이틀씩 일손을 놓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풍랑 등 일기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길호 군수는 “민선 6기 희망토론회를 통해 군정의 모든 정책은 지역경제 확보와 경제발전, 군민소득향상, 복지증진이 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산림조합 5년연속 ‘우수’

신안군 산림조합(조합장 황관순)이 2014 광주·전남 회원조합 운영 종합평가분야와 상호금융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며 5년 연속 우수조합으로 인정받았다.

21일 신안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성공적인 사업을 펼친 결과 3억56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조합원에게 출자배당 및 이용과 배당률 6%를 시행하는 등 흑자경영을 이뤘다.

자산도 2010년 169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67억원, 2013년 280억원, 2014년 36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신안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목포시 옥암동 하당 신도심 중심 상권지역에 하당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신안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우수조합으로 선정돼 받은 인센티브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5년 동안 받은 우수조합 시상금 1억66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조합원자녀 총 100여명(매년 2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관순 조합장은 “앞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꽃과 나무, 식용 임산물 판매사업 활성화 등으로 더욱 튼튼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 나비대축제’ 준비 분주 ‘제17회 함평 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최근 함평군 엑스포공원 사업소내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농업관에 선보일 단호박과 토마토 등 80여 종의 농작물 관리작업이 부산하다. 올해 나비축제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시내지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중월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신문구독 - 062

220-0551

예향구독 - 062

220-0550